

보도시점 2026. 6. 18.(목) **배포 시** 배포 2026. 6. 18.(목) 17:00

## 농식품부, 호우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상황점검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 지방정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대상으로 6.19, 6.20일 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본부 부서(수리시설, 축산, 원예), 농촌진흥청·산림청, 9개 도 및 농협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8일(목) 호우 대비 긴급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목) 오후부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19일(금) 오후부터 제주, 전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2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9개 도,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농협 등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관리,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하우스 등 시설물 및 산사태 대응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수리시설, 축산, 원예,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등 취약지역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복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782)